

탈출구 없는 생활고에... 또 위기가정의 비극

장성 모녀 이어 광주 단독주택서 부부·딸 숨진 채 발견 보호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일주일새 잇따라 극단 선택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온 40대 중년 가정들이 사회적 독립을 앞둔 성인 자녀와 함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모가 미성년인 아닌 성인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들 가정의 경우 가장들이 나이나 건강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단독주택 안방에서 A(49)씨와 아내(40), 딸(20)이 숨져 있는 것

을 집주인이 발견했다. 집주인은 월세(1개월 기준 30만원)가 3개월분이나 밀려있고 같은 기간 상수도·전기 사용 내역도 없어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에는 숨진 지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와 아내, 딸이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A4용지 크기 유서 3장에는 "우리 3명을 같은 관에 넣어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같은 내용의 글이 각각의 서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대전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 아들(17) 감금·학대 등의 혐의로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후 주변 사람과 연락을 끊고 아내의 친언니가 있는 광주로

내려와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아내는 대전은 물론 광주에서도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고교를 졸업한 딸도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으로 소득이 없었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별다른 국가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장성의 한 저수지에 빠져 있는 차량에서 딸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40대 여성 가장 B씨(46)가 대학생 딸(19)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두 가족이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으로 '탈출구 없는 생활고'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발생한 '승과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마련한 긴급복지 지원법 등도, 이들 40대 가정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 젊은층인 40대 가장이 스스로 행정기관을 찾아가 긴급지원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청을 하더라도 일시적 지원에 그쳐 자립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 예방 사업 대부분도 상담이나 심리치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은주 광주자살예방교육협회 대표는 "이번 두 자살 사건의 특징은 성인이 된 자녀, 특히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인 여성들이 부모와 함께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딸의) 정서적 특성상 부모가 처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곁에서 지켜보면서 (부모의 자살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빈곤의 대물림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좌절감 등도 생을 포기하는 큰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육설에 핏길 살해 용의자 자수

목포경찰청은 "지난 1일 이웃 핏집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한 혐의(살인)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7분께 목포시 한 수산시장 내 핏집 주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목포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인근 핏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B씨가 전화를 걸어 왜 내 고향과 고향 사람 육을 하느냐며 육설을 했다"면서 "화가 나 사과를 받으러 갔다가 다툼 끝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좌초·고장 요트 잇따라 구조

여수 해상에서 좌초되고 기관고장이 난 요트가 잇따라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북쪽 11km 해상에서 C호(4.58t) 선장 한모(58)씨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 긴급 구조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50t급 경비정을 신속히 출동시켜 C호를 2시간여만에 고흥군 나로도항으로 예인, 입항시켰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에는 경남 두미도항에서 선박 수리 차 출항한 세일링 요트 A호(4t)가 여수 장군도와 우두리 사이 해상에서 운항 미숙으로 인해 암초에 좌초됐다. 해경구조대와 봉산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구조 작업으로 인명피해 없이 여수 마리나 항으로 입항 조치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한 개헌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지부·광주향교·광주시 기독교단협의회 등이 '개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한 개헌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지부·광주향교·광주시 기독교단협의회 등이 '개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주 맥도날드 장염 역학조사 빠르면 6일 발표

장염 증상자 보건소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3일 "지난달 26일 전주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사람이 확인되면 역학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등학생들은 불고기버거를 먹은 후 장염 증세를 보였으며, 맥도날드는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보건소는 전날 증상자들을 접촉하고 해당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등을 수거해 식중독과 햄버거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6일께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원인 규명을 위해 매장 조리실 등의 위생환경을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불고기 버거 판매 중단조치와 관련해 "전주 지역 매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에는 경남 두미도항에서 선박 수리 차 출항한 세일링 요트 A호(4t)가 여수 장군도와 우두리 사이 해상에서 운항 미숙으로 인해 암초에 좌초됐다. 해경구조대와 봉산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구조 작업으로 인명피해 없이 여수 마리나 항으로 입항 조치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해임→복직→감봉→감봉→정직 어느 복직 체육교사의 가시밭길 사립중학교 징계 폭탄 논란

체육실 아닌 교감 책상앞 근무도 학교측 "한 건은 징계위 조사중"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A(60) 체육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체육실을 떠나 교사연구실 교감 책상 앞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가 학교 법인의 해임처분에 맞서 해임취소청구를 제기해 교원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진 이후 복직하면서부터다.

A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현직 이사장의 할아버지(고인)인 전직 이사장의 아들과 딸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다.

3일 A교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교원공제회 등에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현 이사장의 할아버지인 전 이사장에게 빌려줬는데, 당사자가 고인이 되면서 원금·이자 수천 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2015년 5월 현직 이사장의 고모와 작은 아버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추후 법인은 소에서 제외됐다.

해당 학교법인은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 교사에 대해 해임·감봉 1월·감봉 1월·정직 1월(예고)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법인은 A 교사가 지난 2015년 11월 초 자신의 사이버연수생 교무실 무사에게 6회에 걸쳐 대리연수를 받도록 한 점과 보험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팩스로 보내도록 사적인 업무부탁을 한 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해 1월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소청심사위는 법인이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사이버 대리연수 행위에 한해 서면 징계사유로 인정한 뒤 "교원 징계권 행사자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 측이 내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2월 복직하던 A씨는 학교 측에 명퇴의사를 전했으나, 법인은 이미 해임 취소처분을 받은 사이버연수 대리연수 행위 6건 중 징계소멸시효가 유효한 2건을 문제 삼아 감봉 1월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견책으로 감경받았다.

이후 A 교사는 지난해 학력평가 시험감독 중 답안지를 10분 전에 회수했다는 사유로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징계위원회에선 견책처분 통보를 받았다.

A교사는 현재 교교협의회에서 학년 배정문제로 동료 교사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예고 받은 상태다.

A교사는 "체육교사 경력만 33년인데, 복직 후 체육실이 아닌 교사연구실 교감책상 앞에 자리를 배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조치는 교단에서 출혈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인사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징계 사유 내 건 가운데 한 건은 아직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더 이상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관련) 공문도 오갔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2000만원짜리 외제 자전거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꿀꺽'



○...2000만원이 넘는 고가 외제 자전거로 고의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경찰서행.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수리 판매점을 운영하던 강모씨는 2015년 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매장에 전시했던 이탈리아제 자전거를 동호회 회원 오모씨에게 잡고 있으라고 한 뒤 차로 들이받아 보험금 900만원을 타낸 데 이어 2016년 1월에도 경기도에서 같

은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는 이모씨 등 다른 동호회 회원 3명과 찌고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매장에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1200만원으로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

○...지난해 말 경영난으로 매장을 폐업했다는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겨울에 장사가 잘 안돼 점포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범행을 하게 됐다"며 서처를 호소.

/연합뉴스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h3>삼각동,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h3>리조트 / 무인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h3>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h3>광양,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 신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
---	--	---	--